

반달가슴곰 새끼 태어난 우치동물원 “경사났네”



어미곰 '반순이'의 출산 전 모습.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반달가슴곰(천연기념물 제329호)이 2세 출산에 성공했다.

우치동물원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중인 반달가슴곰 새끼가 태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반달가슴곰이 우치동물원에 터를 잡은 지 6~10년 만이다. 이들 반달가슴곰은 지난 2005년(암컷)

몸 길이 40cm·무게 400g

지난 1일 출산 건강하게 자라

야생 아난 사육시설 이력적

5월 초 관람객에 공개 예정

과 2009년(수컷) 각각 우치동물원에 자리를 잡았다.

9일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수컷 '반돌이'(10살·몸무게 100kg)와 암컷 '반순이'(12살·몸무게 60kg) 사이에서 순수 혈통의 반달가슴곰 새끼가 태어났다.

동물원에서 반달가슴곰의 출산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몸 길이는 대략 30~40cm이며 몸무게는 400g(출산 당시 200g)으로 추정된다.

태어난 새끼 수와 성별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기반달곰은 어미 품에서 100일 정도를 보내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바깥 세상에 첫 선을 보이게 되는데, 태어난 지 40여 일 밖에 지나지 않아 어미 품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우치동물원은 어미 곰이 자칫 외부 방해 요소 등에 의해 새끼 곰에게 해를 가할 것을 우려, 외부 출입은 물론 접촉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또 새끼 곰 스스로 어미 품을 떠나 자연스럽게 바깥 출입을 할 때까지 기다릴 계획이다.

인공포육된 동물은 무리와 어울리지 못하거나 사고공치로 자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 최대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새끼를 길러 동물 복지를 높였다는 것이다.

우치동물원은 새끼 곰이 건강하게 자란다면 오는 5월 초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올 봄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재롱 피우는 반달가슴곰 새끼를 보는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달가슴곰의 임신기간은 210일(7개월) 정도다. 반달가슴곰이 지난달 1일 출산한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6월~7월께 짝짓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달가슴곰은 교미한 뒤 수정란을 뱃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동면 직전에 착상시킨다. 출산은 동면 중 이뤄진다.

먹이가 풍부한 동물원에서 곰들이 동면을 하지 않는데, 이는 어미 곰이 우리에서 새끼를 잘 낳지 않는 이유다.

새끼 곰은 어미 곰이 동면에서 깨어나는 4월 말~5월 초 동굴에서 나온다. 새끼 곰은 생후 2년까지 어미 곰과 함께 생활한 뒤 독립한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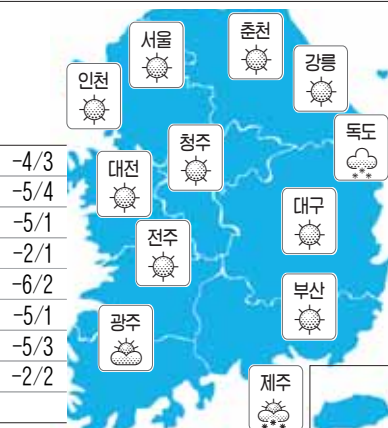
해돋이 06:51 | 달뜨기 22:42
해질 18:35 | 달지기 09:06

태어난 동장군!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는 곳도 있었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5/2	보성	맑음	-4/3
목포	구름많음	-3/1	순천	맑음	-5/4
여수	맑음	-4/4	영광	구름많음	-5/1
나주	구름많음	-6/3	진도	구름많음	-2/1
완도	구름많음	-3/2	전주	맑음	-6/2
구례	맑음	-5/3	군산	맑음	-5/1
강진	구름많음	-4/3	남원	맑음	-5/3
해남	구름많음	-3/2	홍산도	구름많음	-2/2
장성	구름많음	-6/2			



바다 날씨

지역	암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1.5~3.0
남해	남바다	북서~북	3.0~6.0	북서~북	2.0~4.0
서부	남바다(동)	북서~북	1.5~3.0	북서~북	1.0~2.5
서부	남바다(서)	북서~북	3.0~5.0	북서~북	2.0~4.0
서부	남바다(서)	북서~북	3.0~5.0	북서~북	2.0~3.0

생활지수

☾	수면	60
🚲	운동	60
👕	빨래	7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4:44	16:53	09:55	22:09
여수	11:36	23:57	05:25	17:32

주간 날씨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	☁	☁	☁	☁	☁	☁
-3/10	-1/12	1/13	3/14	3/14	3/16	4/15

장례용품 강매뎀 과태료 최대 300만원

복지부, 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호화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봉안시설(납골당) 관리자를 처벌할 과태료·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영업자,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설치·관리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

장례용품을 강매한 장례식장은 1회 위반 시 지정명령에서 5차 위반 시 최대 6개월까지 영업·업무 정지가 차등 부과된다.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관리자는 1회 위반시부터 1개월의 업무 정지가 부과된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의 관리자 등이 봉안·자연장의 상황을 제대로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을 때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7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다.

또 사설묘지를 포함한 장사시설 관리자가 시설의 보존·재해예방을 위해 총수입의 5%를 매년 적립하는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때도 15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로화단 봄꽃 단장

9일 새봄을 맞아 광주북구청 공원녹지와 직원들이 북구청 사거리 도로변 가로화단에 팬지와 패랭이 등 봄꽃을 심고 있다. 북구청은 이달말까지 북구지역 주요 가로화단에 2만분의 봄꽃을 심을 예정이다.

9일 새봄을 맞아 광주북구청 공원녹지와 직원들이 북구청 사거리 도로변 가로화단에 팬지와 패랭이 등 봄꽃을 심고 있다. 북구청은 이달말까지 북구지역 주요 가로화단에 2만분의 봄꽃을 심을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소각산불 없는 마을 만들기' 전국 1만5천여마을 참여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숲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등을 태우지 않기로 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서약에 전국 1만5851개 마을이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마을은 봄 산불조심 기간인 오는 5월 15일까지 숲 인접지점에서 어떤 소각행위도 하지 않기로 서약했다.

산림청은 소각산불이 없는 지역의 산불 예방 노력 등을 감안해 전국 300개 마을에 5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로가

큰 이상 34명을 시·도별로 추천받아 표창할 계획이다.

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서약을 유도한 결과 지난해 소각산불이 10% 가량 줄었다"며 "영농활동 등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반드시 서약내용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숲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놓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강진 산골학교에 중국 유학생 화제

올 음천초교 입학 인상우군...폐교 위기서 활기

도시로 유학길에 오른 학생들이 늘면서 폐교 위기에 처한 사골 작은 학교에 중국 학생이 입학,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중국 허얼빈에 사는 안상우(8·사진 왼쪽서 두번째)군이 인구 800여 명의 작은 산골인 음천면으로 유학을 왔다. 안 군은 허얼빈에 사는 조선족 부모를 떠나 지난 2월 이 학교에 입학했다. 안 군은 음천면에 사는 고모에게 산촌유학 이야기를 듣고서 광주 등 대도시도 아닌 작은 산골 학교로의 유학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군은 아직 한국말이 서툴다. 지난해 12월 한국으로 건너와 유치원에 다니며 한국어 기초를 익히고 있는 중이다.

안 군은 산골에 자리잡은 음천초교를 다니며 자연과 교우관계를 통해 인성과 감성을 기르고 학업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관내 특성화 공립학교인 청량중학교와 거점고인 강진고를 거쳐 국내에서 대학까지 마친 뒤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음천초교는 친환경 청정지역이라는

이점을 살려 자연을 활용한 '힐링교육'을 시행, 도시 유학생이 찾아오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전국 최초로 공교육기관에서 '산촌유학'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1명의 학생이 전국에서 찾아왔다. 입학식에는 안 군 외에도 경기도 안성시에서 3명의 학생이 산촌 유학을 왔다. 3년 전 폐교 위기에 몰렸던 작은 학교가 산촌 유학을 택한 학생 유입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기존 4학급이었던 학교는 올해 6학급으로 증설됐다.

17년 만에 교감이 부임하고 2명의 교사가 증원되는 겹경사를 맞이하기도 했다. 강진군은 산촌 유학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체류비 2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2000만 원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